

서울역으로 옮겨온 '개성공단의 일상'

문화역서울284서 기획전시
작가 10명 참여 '문화적' 해석

옛 서울역인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성공단의 일상'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 남북 화해 모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문화적으로 해석해 볼만한 전시다. 열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정권이 바뀌기 이전인 2년 전부터 기획됐었다. "이미 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관계가 험했던 시절이었다. 개성공단이 영원히 문닫고, 그 안에서 쌓인 경험들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려웠다. 당시엔 이 전시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공간을 못 얻더라도, 무조건 하자고 중지를 모았다"(정정엽 작가)는 증언은 새삼 바뀐 남북정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개성공단은 도라산역을 넘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6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2004년 10월 설립된 남북경제협력지구로, 공단이 설립된 후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인력과 차량이 왕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군부대가 뒤로 밀려나고 건물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물건이 생산됐다. 이번 기획전은 이 과정을 만든 사람들을 평화를 만들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유수 작가

가는 '예술가'로서 바라보고 오마주했다. 공단의 재가동의 당위, 평화와 희망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개성공단을 설계했던 이들과 이곳에서 일해온 사람들, 섬유, 봉제, 의복, 신발 등과 같은 생산된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6개 기업의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업간제조 등 하루 일과를 데이터하고 시각이미지를 표현해냈다.

지난 6일 전시가 열린 문화역서울284를 찾았다. 정정엽 작가는 '정상 출근' 연작으로, 공단으로 출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을 쉬폰 천 위에 먹으로 그려 천정에 드리워 겹치고 흔들리게 설치한 작품을 소개했다. 또 다른 작품 '개성공단의 문'은 오래된 거울들을 조합해 공단의 열



'아리 프로젝트' 스틸컷, 김봉학프로덕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린 문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정 작가는 "어떤 자료를 보니 북한은 개성을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통일의 초석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개성의 '개'자가 바로 열릴 개자다. 이미 오래된 거울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거울은 뒷면까지 비추기 때문에 열려 있는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오래된 것 속에서 남북이 만날 수 있다"며 "낡고 고풍스런 거울에다 리터치하듯 팔, 콩 같은 곡식을 살짝 그려넣었다. 일상적 교감을 자아내고 싶었다. 나이드신 분들은 풍요로운 느낌을 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부록작가의 '로보다방'은 북측노동자에게 제공했던 로보물자들 중 막대커피를 음용하는 가상의 커피점이다. '로

보'란 '로보물자'에서 차용한 단어로 로동보조물자의 준말이다.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한 일종의 복지 물자를 일컫는 용어로, 초코파이, 봉지커피, 라면, 동태 등을 말한다. 다방 컨셉의 전시장에는 개성공단을 상징하는 미싱 테이블이 있다. 잠정중단조치 이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측 협상가들이 마주할 협상테이블, 서울과 개성을 오고 갈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쉬어가는 테이블을 상징한다. 또한 '품질은 타협이 없다'와 같은 남북측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생산표어들과 꽃문양이 합성된 자수 테이블 보가 펼쳐져 있다.

유수 작가는 공단의 남측, 북측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도라 전망대에서 바

라본 개성공단의 밤'이라는 사진은 공단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전경을 담담하게 전한다. '개성공단 선물'시리즈는 북측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남측 노동자들에게 건넨 사물들과 그 이야기를 육성으로 기록해 보여준다. 최원준 작가는 단편영화 '피륙의 결'로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두 여자 주인공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김봉학프로덕션의 영상, 설치 작업인 '아리 프로젝트'는 수제 축구화 장인이자 북측 노동자에 기술을 전수했던 김봉학의 일상을 통해 남북문제와 노동, 정치적 현실을 질문한다. 임흥순의 '형제봉 가는 길' 영상작업은 2016년 11월 23일 개성공단 기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진행했던 장례 퍼포먼스에 사용된 관, 만장 등 물품을 가지고 형제봉을 오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형제봉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봉우리이자 작가가 개인적으로 자주 올라 남북을 고민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의 분양, 입주, 생산, 근로자 현황과 기업들의 매출액, 총자산 등이 수치로 표현된 그래프, 개성공단의 연혁, 행정서류로 읽는 공단의 일상들이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한다. 전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성희롱·성폭력 미흡땐 '계약 해지'

서울시, 피해자 구제 방안 발표
전담 TF팀 구성하고 제도 정비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대처와 관련한 내부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위탁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내부 제도개선 및 위탁업체 관련 사건 매뉴얼, 관련 피해 시민 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내부제도 개선 ▲시 사업 수행 투자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용역 계약업체로 확대 ▲사각지대 시민 보호 '서울 #withU 프로젝트' 등 세 가지로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이처럼 조직 내부 제도 정비를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 예방 강화에 방점이 찍

혔다. 지난 4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 보직으로도 발령받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관리 책임도 부서장급(4급)→실·본부·국장(3급 이상)까지 확대했다. 또, 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 시스템' 개선도 완료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의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반기별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최우수 1, 우수 2)를 선정해 시상·포상할 계획이다.

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는 이번엔 발표한 기준을 7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

중이다. 시는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지기로 했다.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일반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이는 박원순시장의 민선7기 핵심공약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오진희 기자



'DMZ 평화통일대장정' 스타트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제6회 DMZ 평화통일대장정' 발대식에서 대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120여 명의 대학생들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에 이르는 휴전선 길 155마일(350km)을 14박 15일간 걸을 예정이다. /연철뉴스

박원순, 싱가포르서 '리관유 세계도시상'

서울의 도시재생·혁신 직접 소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8일 '세계도시정상회의(WCS)'에 참석, '리관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 주어지는 상으로,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박 시장은 이날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서울시 홍보부스'를 찾아, 서울의 도시재생과 혁신에 대해 직접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5분(현지시간)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관유 세계도시상' 역대 수상도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0년 신설된 이상의 역대 수상도시로는 스페인 빌바오(2010), 미국 뉴욕(2012), 중국 쑤저우(2014), 콜롬비아 메데인(2016)이 있다.

이번에 서울이 수상도시가 되면서,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국제적 위상을 갖춘



경제·문화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여의도, 용산 등의 도시계획 구상을 소개했다. 또, 2030서울 플랜, 원전하나줄이기 같이 시민참여가 동력인 핵심 정책과 시민참여예산, 현장시장상, 모바일 투표 엠보팅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도 함께 설명했다.

싱가포르 전체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로렌스 워 국가개발부 장관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역대 수상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도시의 도시계획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메데인 시장, 장 하이 쑤저우 부시장, 고트조네 사가르두이 빌바오 부시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오진희 기자

서울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서울시가 세계에서 인구규모로는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가 됐다. 지난 2012년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6년만의 성과다.

서울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은 곳은 32개국 2040개 도시(지난 1월 기준)가 있다. 대부분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다. 대도시는 영국 런던(870만명), 프랑스 파리(220만명) 등 소수다.

'공정무역도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정한 ▲지역의회의 지지 ▲지역매장에서의 공정무역 제품 구입 용이 ▲지역 커뮤니티내 사용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총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각 국가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별 위원회는

지역의회의 지지 등 5개 기준 충족
인구규모 980만... 세계에서 가장 커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실시해 공정무역도시를 인증한다.

서울시는 ▲공정무역 지원결의안 및 조례의결 ▲인구 2만 5000명 당 1개의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약 400개) ▲지역일터와 생활공간내 공정무역공동체 선언 ▲공정무역 캠페인·홍보·교육 시민참여(70만여명)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원회가 정한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번에 공정무역도시로 선정됐다. /오진희 기자